

공감독서교육이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on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송 지 애(Jiae Song)**

조 미 아(Miah Cho)***

< 목 차 >

I. 서론	2. 연구 수행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 선정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V. 연구 결과 분석
3. 용어의 정의	1. 연구 대상
II. 이론적 배경	2. 측정도구
1. 공감과 정서지능의 개념	3. 데이터 분석
2. 선행연구 분석	4. 가설검증 및 결과 요약
III. 연구 설계 및 공감독서교육 모형 개발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모형 및 가설	

초 록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감독서교육의 현실적인 공감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10명을 선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공감독서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 10명과 교재도서의 중요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 12명의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경기도 U시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104명을 대상으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공감독서, 독서교육, 공감능력, 정서지능, 정서조절, 초등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mpathy reading education program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First, in order to select realistic empathy topics for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program, 10 specialist groups were selected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s well. 10 expert in the development of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program and 12 experts for selecting the importance of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textbook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hrough Delphi investigation and analysis.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program was studied and conducted on 104 grade 5 students in 'A' elementary school in U city, Gyeonggi-do. In conclusion,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Empathy Reading, Reading Education,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Control, Elementary student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연구임.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발곡초등학교 사서(beansja@gmail.com)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iah100@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2월 19일 •최초심사: 2018년 2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267-292,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3.26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충동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하여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은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Ulrich Beck 2014).”라고 경고하였다. 그의 경고처럼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적인 언행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분노조절 장애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50%가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남을 때리거나 방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와 관련된 정서조절능력의 어려운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분노와 관련된 범죄로 국내 경제적 손실은 매년 9,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등의 관련 기사가 보고되고 있다(대전일보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로 진료 받은 인원은 연평균 1만 3,600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 3,720명이던 환자 수가 2013년에는 1,214명으로 32.6%가 증가하였다. 성별과 나이별 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0대 남성이 1,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0대 여성도 36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조절과 관련된 상담 건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문 2017).

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범죄 등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의 폭력성 증가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결핍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감능력 및 충동성 조절능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재훈 2012). 이는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학생과 어른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심리 상태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특별하게 위험해진 현재 한국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감능력’이다(조선순 2013).

『論語』에서 공자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충(忠)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서(恕)라 표현하였다. 즉, 충서(忠恕)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으로 타인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누군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열린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서(忠恕)와 같이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바람직한 관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감이 있으며, ‘나’와 ‘너’가 감응하여 공명하게 만들고 ‘하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가는 힘이 공감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박성희 2009).

공감(empathy)능력이란, 타인의 아픔을 느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경험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신과 타인의 태도를 바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공감의 역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감적 사고와 정서를 독서교육을 통해 체험하면서 공감이 삶의 태도와 자세로 형성되도록 공감반응의 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공감교육이 필요하다(김광수, 조선순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능력의 교육적 실현을 위하여 독서 중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공감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이론 및 정서지능 이론에 관련된 개념, 구성요소, 발달적 특성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감독서교육에 관한 문헌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공감독서교육과 공감능력 및 정서지능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대상에게 현실적인 공감주제를 선정하였다.

셋째,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공감독서교육의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넷째,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공감주제와 관련된 교재도서의 중요도 선정을 위해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1차, 2차 델파이 조사 실행을 통해 공감독서교육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일곱째,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의 사후평가와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 평가는 아동의 만족도와 교사의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였다. 관찰 평가는 연구자의 관찰과 교사의 관찰, 사서의 관찰을 통해 다각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3. 용어의 정의

○ 공감독서교육 : 공감독서교육이란 독서를 중심으로 책 속 주인공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경험하는 통합된 활동이다. 독서 활동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신의 처지를 절대화하지 않고 타인 즉, 책 속 주인공의 처지에서 사태를 공감하고 성찰하는 독서교육 활동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감과 정서지능의 개념

공감의 개념은 우리말의 전통적인 용례와 달리 근대 이후 서양의 말인 ‘empathy’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공감(empathy)의 어원은 안을 뜻하는 ‘en’과 고통 또는 열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어로서 그리스어의 empatheia에서 유래했으며,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다. 이후 1909년 Edward Titchener에 의해 번역된 ‘empathy’을 영미권 학자들에게 소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다(Titchener 1909).

공감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Baron-Cohen 2011). 이처럼 공감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연구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를 종합하여 공감을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90년에 미국 예일대학교의 Salovey 교수와 뉴햄프셔대학교의 Mayer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정서지능이 Mayer와 Salovey에 의해 개념이 처음 제안되어 199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연구되고 있다. 사회적 지능의 기존 개념을 정교화하고, Gardner의 개인 간 지능과 개인 내 지능을 ‘정서지능’이라는 폭넓은 용어로 재개념화 하였다(이지영 2013). 즉,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구별하여 타인의 사고와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Goleman은 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 경험이 아동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 반응 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Goleman 1995). 즉, 정서는 아동의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기의 정서적 경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행동뿐 아니라

정서발달의 한 부분으로써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서는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적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정서조절을 원만히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공감교육 활동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서적 문제해결과 정서표현 기술이 향상되도록 아동에게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2. 선행연구 분석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독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에 관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역할놀이(김해연 2009), 공감훈련 상담(정혜연 2004), 공격행동(한경인 2014)과 사회성을 중심의 공감교육(Kieran 1979)과 공감훈련 향상 프로그램(류현정 2008)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턴 이후 청소년까지 공감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조혜경 2015), 자아존중감(김신아, 황영식 2012), 심리적 안녕감(박수정 2011) 등 공감과 관련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려는 조사 연구, 공감교육 및 공감훈련 프로그램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공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공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공감에 대한 연구물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최은실 2010), 공격성과 정서적 능력(박윤아 2007), 부정감정과 분노조절 및 갈등해결(Lantieri & Patti 1996), 자기 통제력과 또래지원(노혜영 2015)을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정서지능의 연구는 대부분 정서조절과 분노조절을 다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기조절 및 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대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아동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정서지능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 도덕적 분위기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정서표현 등 정서지능 발달에 중요한 맥락임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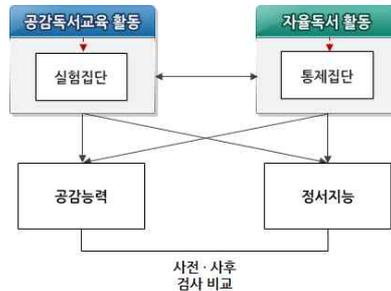
셋째, 독서교육과 공감을 다룬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김지혜 2016), 방관적 태도(김난희 2009), 교우관계를 파악한 연구(최미정 2010) 등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독서교육은 주로 공감능력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활동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공감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를 제기했다는데 의의와 유사점을 갖지만 다양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방적 차원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공감독서교육 모형 개발과 교재자료의 개발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설계 및 공감독서교육 모형 개발

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사전과 사후에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검사를 시행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공감독서교육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인지적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적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감정이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의 사고촉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지식의 활용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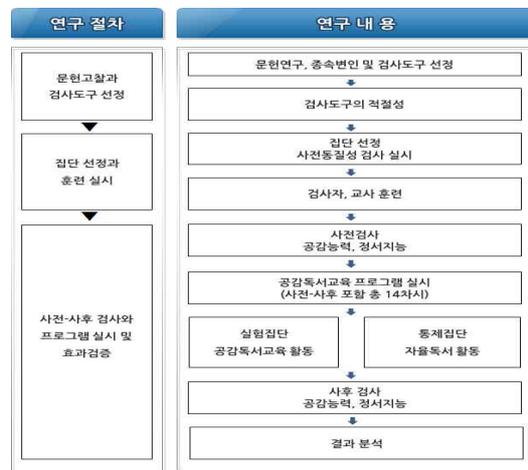
2.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공감능력, 정서지능을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연구를 위해 5학년 4개반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검사 도구 측정에 대한 검사자 훈련과 검사도구 측정 및 실험 처치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담임교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연구 집단 4개반 104명을 대상으로 각 교실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사전 검사지는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임의로 선정된 실험집단 2개반 52명과 통제집단 2개반 52명의 두 집단 간 사전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사전동질성 검사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주 1~2회 실시하여 총 12차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실험처치 종료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두 집단 모두 사후검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현장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수행 절차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연구 수행 절차

3.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선정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독서교육과 공감능력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이론을 토대로 독서교육 모형과 공감교육 모형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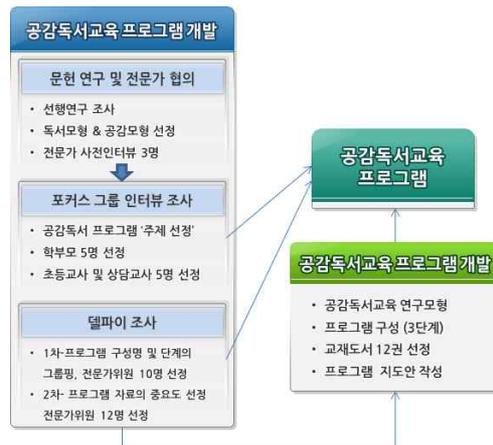
둘째,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더욱 현실적인 주제 선정을 목적으로 실험집단과 가장 밀접한 학부모와 전문가 선별을 통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위원은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 5명과 5학년 담임교사 4명 및 5~6학년 상담교사 1명 총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룹별로 인터뷰 진행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공감주제

를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공감주제를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최종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독서모형과 공감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 10명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 모형을 검증받았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단계와 각 구성명의 범주화(그룹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교재도서 선정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2명의 전문가를 통해 교재도서의 중요도를 선별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교재도서는 선정된 공감주제 및 정서지능과 관련된 도서로써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을 위한 도서의 적절성과 타당성의 검증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12명의 전문가위원은 다년간의 어린이 자료 개발자와 어린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 어린이 독서연구가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가위원이 참여하여 도서의 중요도 선별을 통해 프로그램의 교재도서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처럼 구성된 현장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도서는 19권이며, 선정된 책들은 본 연구의 사회적인 주제와 윤리적인 주제들이 풍부한 책으로 프로그램 수업 차시를 고려하여 최종 12권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은 사전, 사후검사를 포함하여 총 14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사후 2회차를 제외한 총 12회차 동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선정된 공감 교재도서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도록 공감독서교육 활동을 하였다.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는 공감능력에 관한 문헌고찰 및 공감의 사회적 문제에 내포된 범주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을 위해 채택하는 아동

들의 가장 큰 고민 상황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공감 및 정서 범주(화·스트레스, 배려, 감정조절)로 선정하였다. 현실적인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초등학생 고학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명과 현장 전문가인 초등학생 5학년 교사 4명, 초등학교 상담교사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부모 및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최종학력	전공	소속	교직경력
학부모 1	여	45	학사	청소년학	주부	.
학부모 2	여	44	석사	조경학	주부	.
학부모 3	여	43	학사	컴퓨터공학	주부	.
학부모 4	여	46	학사	가정관리학	주부	.
학부모 5	여	44	학사	유아교육학	주부	.
교사 1	여	40	학사	초등교육학	초등교사	18년
교사 2	여	41	학사	초등교육학	초등교사	13년
교사 3	여	45	학사	초등교육학	초등교사	9년
교사 4	남	31	학사	초등교육학	초등교사	3년
교사 5	여	49	석사	상담심리학	초등상담교사	22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아동들의 문제적 상황범주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도 평가를 위해 2017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포커스 그룹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의 목적 및 설문 내용을 개인 전자메일로 전달하였고, 사후에 면담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다.

나. 1차 델파이 조사

공감독서교육의 1차 델파이 조사는 독서지도 모형 및 공감모형에 관한 문헌고찰 및 구성요인에 내포된 특징과 내용을 도출(導出)하여 Bleich가 제안한 Response Heuristic(응답추론) 독서지도 모형과 Barrette-Lennard가 제안한 순환적 공감모형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공감독서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의 연구 모형 신뢰도 검증을 위해 현장 전문가 위원 10명을 선정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헌자료 및 공감이론을 통해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 단계를 크게 공감인지하기, 공감이해하기, 공감각성하기, 공감표현하기 네 가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에 1차 델파이 조사 내용은 첫 번째,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각 구성 단계를 네 가지 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두 번째, 네 가지 구성 단계의 명칭표기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최종학력	전공	소속	관련경력
전문가 위원1	남	69	박사	독서교육	대학 교수	47
전문가 위원2	여	66	박사	독서교육	대학 교수	42
전문가 위원3	여	50	박사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대학 교수	21
전문가 위원4	여	48	박사	문헌정보학	공공도서관 관장	20
전문가 위원5	남	41	박사	독서치료	독서치료연구소 소장	18
전문가 위원6	여	53	박사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17
전문가 위원7	여	35	박사	독서교육	작은도서관 사서	14
전문가 위원8	여	47	박사과정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사서	15.5
전문가 위원9	여	47	박사	독서교육	공공도서관 관장	12
전문가 위원10	여	44	박사과정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사서	8

즉, 순환적 공감모형을 적용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구성 단계명 표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의 타당성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응답주른 독서모형의 구성 단계들의 범주화(그룹핑)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차 델파이 조사 내용

요인			전문가										동의수		
			A	B	C	D	E	F	G	H	I	J			
구성	1-1 구성 단계	공감인지하기 공감이해하기 공감각성하기 공감표현하기	5	5	5	4	3	5	2	4	4	5	8		
	1-2 구성명 표기	공감인지하기 공감이해하기 공감각성하기 공감표현하기	5	4	4	3	4	4	2	4	4	4	8		
범주화 (그룹핑)	독서모형단계		프로그램 모형		A	B	C	D	E	5	G	H	I	J	동의수
	도입	텍스트 지각	기초	공감인지하기	5	3	5	4	5	5	2	5	5	5	8
	전개	텍스트 반응	심화	공감이해하기	5	3	5	4	5	5	2	5	5	5	8
				공감각성하기	5	3	5	3	5	5	2	5	5	5	7
마무리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심화 발전	표현	공감표현하기	5	3	5	4	5	5	2	4	5	5	8	

다.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포커스 그룹(학부모, 교사) 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주제인 공감 및 정서 범주와 관련된 교재도서 선정의 타당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린이 자료 개발자 및 현장 전문가 위원 12명을 선별하여 도서의 내용 및 요인분석을 살펴보고,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모형구성단계(기초단계-심화단계-표현단계)의 각 주제단계에 적합한 도서의 중요도 선정을 위해 2차 델파이 조

사를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2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최종학력	전공	소속	자료개발경력
전문가 위원1	남	69	박사	독서교육	대학 교수	47
전문가 위원2	여	48	박사	문헌정보학	공공도서관 관장	20
전문가 위원3	남	41	박사	독서치료	독서치료연구소 소장	18
전문가 위원4	여	53	박사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17
전문가 위원5	여	41	박사과정	문헌정보학	학교도서관 사서	16
전문가 위원6	여	50	석사	사서교육	학교도서관 사서	15
전문가 위원7	여	35	박사	독서교육	작은도서관 사서	14
전문가 위원8	여	37	박사과정	문헌정보학	학교도서관 사서	14
전문가 위원9	여	47	박사	독서교육	공공도서관 관장	12
전문가 위원10	여	35	석사	사서교육	학교도서관 사서	12
전문가 위원11	여	44	박사과정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사서	8
전문가 위원12	여	38	석사	독서치료	교육청도서관 사서	5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1차 도서선정 과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선정된 ‘공감인지와 정서조절’에 관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교과서 및 추천도서, 상황별 독서 목록 등을 참고하여 100권의 도서목록을 도출하였다. 1차로 선정된 100권의 도서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된 도서 중 30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책은 아동에게 공통적인 이슈(예, 공감)들을 제기하고, 책 속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감정이입하여 동일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도서 30권의 검증은 선별된 12명의 자료 개발자 및 현장 전문가 위원들에 의해 교재도서 선정을 위한 도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라. 프로그램 수업 절차 및 계획안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수업 절차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의 사례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수업 절차

단계	회기	주제	목표	독서 활동	교재 도서명
기초	1	나와 다른 것 뿐이야	프로그램 소개 우리의 약속정하기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안내 · 공감의 의미와 공감의 부재 인지하기 · 우리의 다짐(약속) 서약하기	성급한 오리너구리의 우화
	2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 인지하기	소중한 우리 가족구성원 배우기	· 엄마의 감정 찾아드리기 · 내게 숨어있는 행복 찾아보기	폐지책
	3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기분을 나타내는 감정단 어 알아보기	· 원숭이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 서로 어울리는 감정 느낌 짝 지어보기 ·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	기분을 말해봐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1호)

심화	4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이야기 들어주기	· 응원의 감정카드 작성 · 나의 마음속(블룸스베리) 친구들에게 마음 전달하기	내 동생 버지니아 울프
	5	용기와 배려	용기 내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 튀르를 괴롭히는 파올에게 한마디 전하기 · 튀르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빨간 볼
	6	서로 다름에 대한 배려와 공감	수미의 편이 되어주기	· 수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 수미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기 · 수미에게 손 편지 쓰기	수미야, 미안해
	7	마음을 열고 이해하기	상처 받은 영대와 마음 나누기	· 상처 받은 영대의 마음 열어주기 · 영대가 당당히 표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기	내 짝꿍 최영대
	8	폭력이 되는 말과 행동	폭력은 누구의 잘못일까?	· 말로 때린 진우와 주먹을 휘두른 영찬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9	마음의 눈	참호에 갇힌 병사의 마음 공감하기	· 병사처럼 그(적)에게 가족이란 무얼 의미 할까 공감 톡으로 나누기 · 병사의 거짓투성이 지킴서 바르게 고치기 · 병사처럼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적
표현	10	'미안해'라고 말하기	미안해라고 말하기	· 장난꾸러기 엘리자베스의 마음 알기 ·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사과하는 표현하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11	'스트레스'를 표현해 봐!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스트레스를 표현해 보기	·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목록으로 적기 · 나만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	나, 스트레스 받았어!
	12	화를 다루는 현명한 방법	화가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해!	·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 감정에 솔직하기와 화가 나도 곤란한 행동 알아보기	화가 나는 건 당연해

〈표 6〉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도 서 명		수미야, 미안해	활동 차시	6차시
공감 목표		· 친구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한다. · 나의 감정을 조절하며 친구의 생각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공감 요소		감정이입, 정서조절, 존중, 배려, 이해 등		
활동 도서		저자-박복, 출판사-이카로스의 날개, 출판년도-2015.		
활동 과정	공감 단계	활동 내용		활동시간(분)
사전 활동	공감인지하기	초등학교 고학년(5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문학작품(아동동화) 정독을 통해 주인공 심리와 감정을 분석·이해 하며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는 <공감인지하기 과정>		15
본 활동	공감이해하기	1단계에서 공감한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본인의 감정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이해하기 과정>		15
	공감각성하기	타인의 기분이나 경험을 감정적으로 스스로 공감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공감각성하기 과정>		
사후 활동	공감표현하기	공감각성하기에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자기적용하기 단계로 감정을 통제하고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으로 스스로 감정을 코딩하는 <공감표현하기 과정>		10
마음 다스리기 (활동소감 나누기)		공감일기, 공감 좋아요 활동		

IV. 연구 결과 분석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경기도 U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5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다. 4개 반을 선정하여 2개 반은 실험집단으로, 2개 반은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자	25
	여자	27
계	46	5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5학년 4개 반 총 104명으로 실험집단 52명과 통제집단 52명으로 구성되어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 후 사후 평가 시에는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해외여행 및 가정체험 학습 활동의 이유로 사후 검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표본은 정확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최종 표본 수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표본은 실험집단 남자 3명과 여자 1명으로 총 4명의 표본 수가 제외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실험설계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사후검사를 <표 8>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 8> 사전-사후검사 설계

사전검사 (공감능력, 정서지능)	실험처치	통제처치	사후검사 (공감능력, 정서지능)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자율 독서활동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사전검사를 1차시에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는 실험처치 기간에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12차시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에게는 처치 기간에 자율 독서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실험처치가 종료되고 14차시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사후검사를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ryant의 공감적 각성 검사를 1997년 박성희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지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였다(Bryant 1982). 먼저 박성희가 번안한 공감능력 검사지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의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성희 1997).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을,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표 9> 참조).

정서지능의 측정도구 선정은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Mayer, Salovey 1997)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이입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문용린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지를 선택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은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문용린 1999). 이처럼 아동들의 고민 상황인 정서조절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과 상관관계를 통해 최종 선택하였다(<표 10> 참조).

<표 9> 공감능력 측정요인 및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배점	Cronbach's α
인지적 공감	조망취하기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보려는 경향	16, 19, 22, 25, 28	5	20	.78
	상상하기	허구적인 상황 속에서 느낌을 상상해보려는 경향	17, 20, 23, 26, 29	5	20	
정서적 공감	공감적 각성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	1, (2), 3~7, (8), 9, 10, (11), (12), (13), 14, 15	15	60	.76
	공감적 관심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	18, 21, 24, 27, 30	5	20	
전체						.84

<표 10> 정서지능 측정요인 및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배점	Cronbach's α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인식 및 표현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 6, 11, 16, 21, 26, (31), 36	8	32	.70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2, 7, 12, 17, 22, 27, (32), (37),	8	32	.78
정서지능	정서의 사고 촉진	중요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사고를 형성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	3, 8, 13, 18, 23, 28, 33, 38	8	32	.80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정보가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4, 9, 14, 19, 24, 29, 34, 39	8	32	.63
정서조절	정서조절	정서적, 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5, (10), (15), (20), (25), 30, (35), (40)	8	32	.62
	전체					

3. 데이터 분석

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초등학생 고학년의 공감주제 선정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주제 범주 선정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각 세부항목별로 3.00~4.30까지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주제는 정서(12.30)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술통계

구 분		평균±표준편차
1. 가족관계	1.1 부모/조부모	3.20±1.32
	1.2 형제/자매	3.00±0.82
	1.3 역기능 가정	3.60±1.35
2. 대인관계	2.1 친구	4.30±0.95
	2.2 왕따	4.00±0.94
	2.3 교사와의 관계	3.20±0.79
3. 일탈	3.1 학교폭력	4.20±1.03
	3.2 가출	3.00±1.05
	3.3 사이버중독/폭력	3.90±0.57
4. 정서	4.1 화/스트레스	4.30±0.48
	4.2 배려	3.70±0.82
	4.3 감정조절	4.30±0.48
5. 학교	5.1 학업부진	3.40±0.70
	5.2 성적	3.10±0.57
	5.3 학교부적응	3.70±0.95
6. 신체	6.1 신체장애	3.10±1.10
	6.2 성폭력	3.70±1.16
	6.3 사춘기성	4.10±0.99

<표 12> 학부모와 교사의 차이 비교

구 분	n	평균±표준편차	t	p-value	
가족관계	학부모	5	9.60±2.19	-.222	.830
	교사	5	10.00±3.39		
대인관계	학부모	5	11.20±3.03	-.416	.688
	교사	5	11.80±1.10		
일탈	학부모	5	12.00±1.87	1.616	.145
	교사	5	10.20±1.64		
정서	학부모	5	12.60±1.67	.612	.557
	교사	5	12.00±1.41		
학교	학부모	5	9.20±2.17	-1.841	.103
	교사	5	11.20±1.10		
신체	학부모	5	10.40±2.70	-.585	.575
	교사	5	11.40±2.70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간 인식 차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부모와 교사는 모두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로서 정서 범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개인 추정치보다 집단추정치를 적용하는 델파이 기법에서 사용되는 통계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구 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내용 타당도 비율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위수	최빈값	사분 범위					
구성	구성 단계	4.20	1.03	80.0	4.5	5	4.0~5.0	0.78	0.50	0.78	
	구성명 표기	3.80	0.79	80.0	4	4	4.0~4.0	1.00	0.00	0.78	
범주화 (그룹핑)	기초	공감인지하기	4.40	1.07	80.0	5	5	4.0~5.0	0.80	0.50	0.78
		심화	공감이해하기	4.40	1.07	80.0	5	5	4.0~5.0	0.80	0.50
	공감각성하기		4.30	1.16	70.0	5	5	3.0~5.0	0.80	1.00	0.56
	표현	공감표현하기	4.30	1.06	80.0	5	5	4.0~5.0	0.80	0.50	0.78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프로그램 모형의 구성과 범주화에 대하여 평균값은 3.80~4.40이며, 표준편차는 구성명 표기(0.79)를 제외하고 1.03~1.16의 범위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의도는 0.78~1.00으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일 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심화학습 단계의 공감각성하기에 대해서는 수렴도가 1.00으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는 중위수와 최빈값이 4~5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구성과 범주화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공감각성하기를 제외하고 모두 0.78로 나타나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들 가운데 의미가 있거나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이 반영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권고된 사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과 이유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1차 델파이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구성명 및 범주명 수정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 ‘공감각성하기’를 ‘공감이해하기’와 함께 심화단계의 ‘공감이해·각성하기’ 단계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인지하기, 공감이해·각성하기, 공감표현하기 3단계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 모형이 최종 구성되었다.

<표 14> 1차 델파이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구성명 및 범주명 수정

수정종류	범주 및 요인		수정 이유 및 내용
범주화 (그룹핑)	심화 단계	공감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단계에서 공감이해하기와 공감각성하기의 명확한 구분이 애매하다는 의견 • 초등학생에게 보다 쉽고 적용 가능하도록 초기 모형 4단계에서 3단계로 모형 수정 및 보완 의견
		공감각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단계에서의 '공감각성하기'를 '이해와 각성'의 한 범주로 수정 및 보완 의견

다.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분석 자료 처리의 중요도는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중요도 50% 이상으로 나타난 도서 19권을 우선 선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단계의 중요도는 평균 50.0~66.7에 해당하며, 선정된 도서는 총 4권으로 기초단계의 도서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단계의 중요도는 평균 50.0~75.0으로 선정된 도서는 총 10권이며 중요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단계의 중요도는 평균 50.0에 해당하며, 선정된 도서는 총 5권으로 중요도 50.0을 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중 프로그램의 회기별 학습에 적합한 교재를 분석하여 최종 교재도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중요도 교재도서는 총 12권이며,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순번	서명	저자/출판사/발행년	중요도(%)		
			기초	심화	표현
1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폴리 뱅. 책 읽는 곰, 2015.	4(33.3)	3(25.0)	5(41.7)
2	오빠는 오늘도 폭발 중	에드바르트 판 드 판넬. 라임, 2016.	3(25.0)	3(25.0)	6(50.0)
3	빼구 래봉	마영신. 창비, 2015.	2(16.7)	6(50.0)	4(33.3)
4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노경실. 해와 나무, 2015.	3(25.0)	7(58.3)	2(16.7)
5	성질 좀 부리지마, 닐슨!	자카리아 오하라. 소원나무, 2015.	5(41.7)	6(50.0)	1(8.3)
6	네 맘대로는 이제 그만	윤소연. 아주좋은 날, 2015.	2(16.7)	5(41.7)	4(33.3)
7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박효미. 사계절출판사, 2014.	4(33.3)	5(41.7)	3(25.0)
8	돌담 너머 비밀의 집	오채. 문학과지성사, 2014.	1(8.3)	6(50.0)	5(41.7)
9	빨간 볼	안 더 킨더르. 내 인생의 책, 2014.	1(8.3)	7(58.3)	4(33.3)
10	말로 때리면 안 돼!	이재희. 주니어김영사, 2014.	5(41.7)	4(33.3)	3(25.0)
11	바람이 휘, 바람이 췌	하슬러. 비룡소, 2002.	5(41.7)	4(33.3)	3(25.0)
12	난 왜 자꾸 질투가 날까?	강민경. 팜파스, 2015.	3(25.0)	6(50.0)	3(25.0)
13	내 동생 버지니아 울프	료 맥클레어. 산하, 2014.	4(33.3)	7(58.3)	1(8.3)
14	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세이조. 보림, 1996.	6(50.0)	3(25.0)	3(25.0)
15	터널	앤서니 브라운. 논장, 2002.	5(41.7)	3(25.0)	4(33.3)
16	성급한 오리너구리의 우화	이윤희. 파랑새어린이, 2002.	7(58.3)	4(33.3)	1(8.3)
17	일곱 마리 눈먼 생쥐	에드 영. 시공주니어, 2017.	5(41.7)	5(41.7)	2(16.7)
18	적	다비드 칼리. 문학동네, 2008.	1(8.3)	8(66.7)	3(25.0)

19	마음을 파는 가게	나시야 아리에. 개암나무, 2012.	3(25.0)	3(25.0)	6(50.0)
20	수미야, 미안해	박 북. 이카로스의 날개, 2015.	3(25.0)	7(58.3)	2(16.7)
21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	6(50.0)	4(33.3)	2(16.7)
22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지로. 햇살과 나무꾼, 2006.	3(25.0)	5(41.7)	4(33.3)
23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마라 베르그만. 단비어린이, 2013.	3(25.0)	3(25.0)	6(50.0)
24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미셸린느 먼디. 비룡소, 2003.	4(33.3)	2(16.7)	6(50.0)
25	나 스트레스 받았어	미셸린느 먼디. 비룡소, 2003.	3(25.0)	3(25.0)	6(50.0)
26	마법의 설탕 두조각	미하엘 엔데. 소년한길, 2001.	3(25.0)	5(41.7)	4(33.3)
27	내 짝궁 최영대	채인선. 재미마주, 2012.	0(0.0)	9(75.0)	3(25.0)
28	말하는 소나무	고희선. 나한기획, 2011.	2(16.7)	5(41.7)	5(41.7)
29	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1.	8(66.7)	0(0.0)	4(33.3)
30	우씨! 옥하고 화나는 걸 어떡해	한현주. 팜파스, 2013.	4(33.3)	3(25.0)	5(41.7)

라. 공감독서교육에 따른 공감능력 분석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완료 후 참여아동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변량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교정된 사후점수를 구한 뒤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16>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와 교정평균을 각각 나타낸다.

<표 16>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구분	N	평균±표준편차(SE)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평균	
인지적 공감	실험집단	46	31.28±5.20	31.78±5.59	31.80±(0.62)
	통제집단	52	31.35±5.64	30.63±4.66	30.62±(0.59)
정서적 공감	실험집단	46	67.48±7.72	69.37±9.58	69.20±(0.96)
	통제집단	52	67.04±10.17	65.85±8.79	65.99±(0.90)
공감능력 총점	실험집단	46	98.76±11.93	101.15±14.07	101.01±(1.38)
	통제집단	52	98.38±13.93	96.48±12.29	96.61±(1.29)

점수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공감능력이 각 하위변인 및 총점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였고, 사후에 통제집단과의 점수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의 교정평균 총점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통제집단보다 교정평균이 4.40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공변량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두 하위변인 중 인지적 공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공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08, p<.05). 또한 공감능력 총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435, p<.05). 그러므로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 공감능력의 사전-사후 공변량 분석

구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인지적 공감	사전(공변량)	811.57	1	811.57	1.905	.171
	집단	34.10	1	34.10		
	오차	1700.31	95	17.90		
	합계	97779.00	98			
정서적 공감	사전(공변량)	4024.12	1	4024.12	5.908*	.017
	집단	251.47	1	251.47		
	오차	4043.37	95	42.56		
	합계	454883.00	98			
공감능력 총점	사전(공변량)	8349.16	1	8349.16	5.435*	.022
	집단	472.90	1	472.90		
	오차	8265.76	95	87.01		
	합계	971320.00	98			

*p<.05

마. 공감독서교육에 따른 정서지능 분석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지능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점수와 교정평균은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구분	N	평균±표준편차(SE)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평균	
정서인식 및 표현	실험집단	46	29.24±4.80	30.02±3.91	29.92±(0.55)
	통제집단	52	29.90±5.29	28.29±5.41	28.38±(0.51)
감정이입	실험집단	46	31.11±5.13	31.15±5.67	31.13±(0.55)
	통제집단	52	31.06±6.69	29.96±5.77	29.98±(0.52)
정서의 사고촉진	실험집단	46	28.52±5.37	29.07±5.06	29.00±(0.61)
	통제집단	52	28.33±6.08	27.29±5.63	27.34±(0.57)
정서지식의 활용	실험집단	46	28.28±4.45	29.33±2.63	29.09±(0.61)
	통제집단	52	27.19±5.91	27.04±5.68	27.25±(0.55)
정서조절	실험집단	46	26.00±4.74	27.91±2.70	28.37±(0.49)
	통제집단	52	27.83±5.01	22.29±4.89	26.88±(0.46)
정서지능 총점	실험집단	46	143.15±17.99	147.48±15.99	147.54±(1.82)
	통제집단	52	143.31±21.89	139.87±21.64	139.81±(1.7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정서지능 각 하위변인 및 총점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완료 후 실험집단의 정서지능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교정평균 총점을 보면,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통제집단보다 교정평균이

7.73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공변량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정서지능의 사전-사후 공변량 분석

구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서인식 및 표현	사전(공변량)	874.05	1	874.05	4.179*	.044
	집단	57.34	1	57.34		
	오차	1303.60	95	13.72		
	합계	85250.00	98			
감정이입	사전(공변량)	1829.13	1	1829.13	2.340	.129
	집단	32.48	1	32.48		
	오차	1318.73	95	13.88		
	합계	94469.00	98			
정서의 사고촉진	사전(공변량)	1159.30	1	1159.30	3.963*	.049
	집단	67.18	1	67.18		
	오차	1610.18	95	16.95		
	합계	80352.00	98			
정서지식의 활용	사전(공변량)	453.26	1	453.26	5.166*	.025
	집단	81.62	1	81.62		
	오차	1500.78	95	15.80		
	합계	79531.00	98			
정서조절	사전(공변량)	515.71	1	515.71	4.825*	.030
	집단	52.44	1	52.44		
	오차	1032.61	95	10.87		
	합계	76111.00	98			
정서지능 총점	사전(공변량)	20842.46	1	20842.46	9.521**	.003
	집단	1457.14	1	1457.14		
	오차	14539.07	95	153.04		
	합계	2053115.00	98			

*p<.05, **p<.01

분석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F=4.179, p<.05), 정서의 사고촉진(F=3.963, p<.05), 정서지식의 활용(F=5.166, p<.05), 정서조절(F=4.825, p<.05)을 유의미하게 향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 총점(F=9.521, p<.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사후 평가 검증

본 연구의 사후평가 검증은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매회기 마다 녹음한 녹취록 및 이를 전사한 내용과 회기별 활동지를 통해 실험집단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았다. 객관적인 관찰 및 분석을 위해 공동의 관찰자 및 분석자를 선정하였으며, 관찰 기록 결과는 질적 연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적은 현장 관찰 기록과 면담을 하고 난 뒤 작성한 전사 자료를 통해 질적 자료로서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나타냈으며, 프로그램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도 분석 자료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장의 연구자와 함께 학급에서는 2인의 담임교사에 의한 관찰기록을 작성하였으며, 연구자 외 현장 참여 관찰은 1인의 사서에 의해 기록 및 평가되었다. 이처럼 사후 평가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아동의 사회적 타당도 결과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교사용 사회적 타당도와 사서의 중재 충실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관찰 평가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연구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실험집단의 아동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변화된 태도나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① 아동의 사회적 타당도

아동의 사회적 타당도 기술통계 결과 아동들은 모든 질문 문항에 대해 평균±표준편차가 4.09~4.39로 높은 응답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아동의 사회적 타당도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 흥미와 공감의 변화, 공감 표현의 사회적 타당도 평가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사용 사회적 타당도

교사의 관찰 평가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질적 연구를 위하여 사회적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실험집단의 담임교사 2명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학급에서의 아동들을 관찰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실험집단의 변화된 태도나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였다. 교사들은 모든 질문 문항에 대해 3.87~4.5로 높은 응답 값을 보여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연구자의 관찰 평가

연구자의 관찰 평가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연구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실험집단의 아동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변화된 태도나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관찰 결과 아동은 또래관계 상황의 책 속 이야기에 가장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공감적 반응의 모습들에서 공감독서교육에서의 교재도서가 아동의 공감 능력과 정서지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많은 학원 스케줄과 학교생활에서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아동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아동 시기에 있어 정서조절과 정서표현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감과 정서적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 가설검증 및 결과 요약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가설검증 및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라 공감능력의 2개 하위 변인 중 인지적 공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공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 총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5.435, p<.05$). 그러므로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의 검증 결과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라 정서지능의 5개 하위 변인 중 감정이입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을 유의미하게 향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 총점($F=9.521, p<.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 설	내 용	채택여부
개념적 가설 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1-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인지적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조작적 가설 1-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적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개념적 가설 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1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2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감정이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조작적 가설 2-3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의 사고촉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4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지식의 활용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5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능력과 정서능력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독서교육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2개 하위변인 중 정서적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감독서교육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5개 하위변인 중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감정이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감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의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 총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의 총점에서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공감독서교육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연구가 및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안과 도서목록, 학생용 활동지를 함께 개발하였다. 향후 다양한 도서를 적용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진다면 학교 현장에서 더 유용하고 현장성 있는 공감독서교육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감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범죄 등 어린 시절 정서적 결핍으로 폭력성 증가의 주요 원인인 충동성 조절능력 장애의 예방 및 치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www.hira.or.kr> [인용 2017. 3. 26].
- 김광수, 조선순. 2013. 초등학생 용서 능력 증진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0(3): 207-231.
- 김난희. 2009. 『독서치료활용 공감증진프로그램이 공감능력과 또래 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 김신아, 황영식. 2012. 공감적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수치심경향 고등학생의 자이존중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심리행동연구학회: 아동교육』. 4(1): 91-111.
- 김지혜. 201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

- 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해연. 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 노혜영. 2015. 『초등 통합학급에서 시행한 자기조절 증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통제력, 또래지원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류현정. 2008. 『공감훈련이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교육전공.
- 문용린. 1999. 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 논총』, 62: 27-50.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 2009. 『공감』. 서울: 이너북스.
- 박수정. 2011. 『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 박영문. 2017. 충동장애 등 환자, 한해 1만 여명...사회적 우려 증가. 『대전일보』. 3월 22일.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6877> [인용 2017. 3. 26].
- 박윤아. 2007.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아동의 공격성 및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이재훈. 2012. 정서적 결핍이 충동조절 저해.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6301.html>> [인용 2017. 4. 1].
- 이지영. 2013. 『정서 조절 코칭북』.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혜연. 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조선순. 2013. 『국어교과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상담교육전공.
- 조혜경.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학교상담전공.
- 최미정. 2010. 『그림책 활용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최은실. 201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한경인. 2014. 『초등교육과정에 삽입된 공감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공격행동과 통합학급의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Simon Baron-Cohen. 2011. 『공감 제로』. 서울: 사이언스북스.
- Ulrich Beck. 2014.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Kieran, S. S., 1979. The development of a tentative model for analyzing and describing empathic understanding in teaching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 Lantieri, L., & Patti, J., 1996. *Waging peace in our schools*. Boston: Beacon Press.
- Mayer, J. D., & Salovey, P.,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 Personality*, 9: 205-209.
- Titchener, Edward B., 1909. *Lectures of the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ought Processes*. New York: Macmillan.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e Gyeong. 2015. *Relationships among Empathic Ability, Self-Regulation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M.A. thesis. Gyeongin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Choi, Eun Sil. 2010.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Ph. 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Han, Kyung In. 2014. *Effects of an Empathy Enhancing Program Embedded in the National Elementary Curriculum on Children's Empathy Ability, Aggressive Behaviors, and Inclusive Classroom Climate*.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ome Page. <www.hira.or.kr> [cited 2017. 3. 26].
- Jo, Sun Soon. 2013.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Using Literature Works in Korean Textbook on Empath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Daegu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Jung, Hye Yeon. 2004. *The Effect of Sensitivity Training Program on Child's Social Ability*. M.A. thesis. Cheju University, Korea.
- Kim, Hae Yeon. 2009. *The Effects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M.A. thesis. Seoul University of

- Education, Korea.
- Kim, Ji Hye. 2016. *The Effect of Bibliotherapy on Socia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M.A. thesis. Kyonggi University, Korea.
- Kim, Kwang Soo & Jo, Sun Soon. 2013. "Development of Empathy Program As a Model for Forgivenes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3): 207-231.
- Kim, Nan Hee. 2009. *The Effects of Empathy Enhancing Program Using Bibliotherapy on Empathy Ability and Attitude of Bystanders in Bullying*. M.A. thesis. Seoul University, Korea.
- Kim, Shin A & Hwang, Young Sig. 2012. "The Effect of Nonviolent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Shame-Proneness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Their Empathy Ability." *Korean Psychological Service Association*. 4(1): 91-111.
- Lee, Jae Hoon. 2012. *Emotional Weakness Hinder Impulse Control*. The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6301.html>> [cited 2017. 4. 1].
- Lee, Ji Young. 2013. *Emotional Adjustment Coaching Book*. Seoul: Sigma of Press.
- Moon, Yong Iin. 1999. "A Research on EI Development Programs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62: 27-50.
- Park, Young Moon. 2017. *Impulse Disorders etc. Patient, 10,000 in a Year..Social Concern*. Daejeonilbo.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6877> [cited 2017. 3. 26].
- Park, Soo Jeong.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Empath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Park, Sung Hee. 197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 Park, Sung Hee. 2009. *Empathy*. Seoul: Inner Books.
- Park, Yun Ah. 2007. *The Effects of Anger Management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Emotional Strengths of Children at Risk for EBD*.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Roh, Hyei Young. 2015. *The Effects of a Self-Regulation Enhancement Program on Students' Self-Control, Peer Support, and Class Participation in Elementary Inclusive Classrooms*. Ph. 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Ryu, Hyun Jung. 2008.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A. thesis. Daegu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Simon, Baron-Cohen. 2011. *Zero Degrees of Empathy*. Seoul: Science Books.
- Ulrich Beck. 2014. *Dangerous society*. Seoul: New Wave.